

조절초점 성향과 부채부담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민정*, 이하나**

1. 서론

저금리 기조의 유지, 주택시장의 정상화 등으로 말미암아 2016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16). 이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5년 대비 올해(상반기) 32.7조원에서 23.6조원으로 대략 9.1% 감소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집담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수신확대로 인한 영업이 확대되면서 비은행권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총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16).

이에 2016년 8월 25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의 잠재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2015년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이어지는 발표로, 반복적으로 발표되는 부채관리방안이 단순히 현재 발생하는 현상에 초점을 둔 피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3년 960조였던 것이 2016년 6월말 기준 1,257조원에 이르러 2015년 말 대비 54.2조원이 증가하였다(한국은행 2016).

금융소비자가 부채사용을 결정하는 것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이자상환의 부담과 현재 소비를 절제하여야 하는 등의 부채로 인한 손실의 책임에서 기인하게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과신, 손실회피성향, 심적회계, 자기통제 등이 금융환경 및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투자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두, 하영원, 2011; 천선용, 윤효식, 2014; 이현숙, 주소현, 2014; 오혜영, 2015). 그러나 부채부담과 관련된 연구(이성립, 성영애, 2007; 김민정, 조혜진, 2013; 성영애, 2012; 이희숙, 박민주, 2013; 한동익, 최현자, 2012)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박주영과 유소이(2016)가 주택담보대출의 선택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인 점을 감안하고 현재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단계까지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박주영과 유소이(2016)의 연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였고, 심리적 특성으로 위험수용성향과 미래 발생할 결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현재 발생할 결과에 대한 관심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적용하였다. 이 외에 심리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한 연구 중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대해 연구한 김영두와 하영원(2011), 금융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천선용과 윤효식(2014), 금융상품 가입 의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오혜영(2015), 그리고 은퇴준비행동을 살펴본 이현숙과 주소현(2014)은 공통적으로 조절초점성향을 고려한 연구를 진

*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행한바 있다.

조절초점은 Higgins(1997)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희망, 열망, 도전, 소망 등의 이상적인 자기지침과 내재적 의무, 임무, 책임 등과 같은 의무적인 자기지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 또는 촉진초점으로, 후자는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으로 구분하며, 향상초점을 가진 금융소비자는 예방초점을 가진 금융소비자보다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영원, 김영두 2011).

금융소비자가 신용을 사용하여 부채를 보유하는 것은 일정한 이자 상환, 상환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 위험, 현재 소비생활에 대한 절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위험요소를 전제로 둔 결정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내재된 향상초점 또는 예방초점의 경향뿐만 아니라 부채의 목적에 따라 부채이용 및 부채부담행동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용을 이용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제한과 소득수준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조절초점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부채부담행동이 조절초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예비조사로서 진행되었다. 즉, 금융소비자 개인이 갖는 조절초점 성향을 파악한 후 금융소비자가 보유하는 부채의 특성과 부채부담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조절초점은 개인에 내재된 성향적 조절초점과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조절초점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성향적 조절초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기초연구로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조절초점성향이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절제 노력여부 및 조기 상환 의지, 부채에 대한 태도 등 행동적 요소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탐색해봄으로써 관련 연구방법과 연구주제의 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금융소비자의 부채부담행동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2.1 조절초점 이론

2.1.1 조절초점이론과 금융소비자 행동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자기차이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을 기초로 Higgins (1997)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상적인 자기지침과 의무적인 자기지침으로 이분화 하였다는 점이 주된 요점이다. 희망, 열망, 도전, 소망 등 긍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상적 자기지침과 달리 의무적인 자기지침은 내재적 의무, 임무, 책임 등 현상 유지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Higgins, 1987).

자기차이이론에 입각하여 Higgins(1997)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절초점이론을 정립하였으며 개인이 원하는 목표의 방향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은 이상적 자아에 집중하여 희망, 소망, 열망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발전과 이득에 초점을 둔 접근전략을 수립한다(Higgins,

1997). 예를 들어 회사원이 인사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영어회화, 자격증 공부에 매달 백만 원의 지출을 감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촉진초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행동이다.

반면 예방초점의 특성은 안정, 책임, 의무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이에 기반 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개인은 당위적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득보다 실에, 도전보다 안정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회피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Idson, Liberman, & Higgins, 2000).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입하면 인사평가에서 평균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 평소에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를 제 시간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원의 행동은 예방초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초점을 가지는지에 따라 특정 목표에 대한 동기형성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다르게 설정된다.

서로 다른 초점은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소비자 심리 및 마케팅에서 조절초점의 유형에 따라 위험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은경, 김봄메, 손영우(2011)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이득을 매개로 하여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결과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 보다는 향상초점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약화되는 측면이 관찰되었다. 즉 개인의 성향이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지만 맥락적요인에 의해 변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각된 이득과 위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위험은 매개 효과가 없는 반면 지각된 이득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예방초점경향이 강한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위험 자체를 더 크게 인지해서라기보다 이득을 더 낮게 지각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제품의 특성 중 무형성이 소비자의 위험지각과 위험감소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절초점의 조절적 영향을 규명한 주선희, 구동모, 김재진(2013)은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 집단이 촉진초점 성향의 소비자집단보다 정신적 무형성에 대해 시간적 위험과 심리적 위험을 더 체감한다고 보았다. 일반적 무형성과 금전적 위험 간의 관계와 물리적 무형성과 성능적 무형성, 그리고 성능적 위험 간의 관계에서에서도 예방초점 성향의 소비자집단이 촉진초점 성향의 소비자집단보다 위험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은 이익을 가져옴과 동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위험지각 수준과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차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향상초점의 수준이 큰 사람의 경우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익을 수반한다는 관점에 주목하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낙관주의와 결합하여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더 약화시키기도 한다. 반면 예방초점의 범위에 속하는 부류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안정을 찾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들의 경우 대개 위험이 가져오는 이익보다 손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는 손실회피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조절초점 이론은 행동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낙관주의, 손실회피성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 행위를 바라본다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즉 위험으로서 투자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을 분석할 때 투자의 절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포된 성향을 고려했을 때 더 설명이 잘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절초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규명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조절초점은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판단하는데 긴요한 요인이고 추가적으로 맥락

적 요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기대수익 위험-정보와 더불어 조절초점이 금융투자상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영두, 하영원(2011)은 조절초점은 금융투자상품 선택에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예방초점보다 향상초점의 금융소비자가 투자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 상품을 더 많이 선택했다. 또한 맥락적 요인인 위험 정보가 이익 영역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익-손실 혼합 영역인 경우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다르게 드러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조절 지향성과 맥락적 요인을 동시에 감안해야함을 시사했다.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 금융상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천선용, 윤효식(2014)의 분석결과 조절초점에 따라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선택이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해 향상초점을 가진 소비자들은 예금상품보다 펀드상품을 더 선호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미래 지향적 목표의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금 손실과 같은 위험을 꺼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예방초점을 가진 소비자들은 펀드상품보다 예금상품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였는데 이는 원금손실이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었다.

조절초점과 손실회피성향에 대한 처리 유창성이 금융상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오혜영(2015)은 금융소비자의 조절초점을 측정하고 상품 설명을 하는 방식의 조절초점 간 적합성이 높을수록 처리 유창성과 개념 유창성 높다고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의 조절초점의 수준, 상품설명방식, 조절초점 간 적합성에서 파생되는 처리유창성과 개념유창성이 상품의 판매 시점의 선택과 판매 의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상품의 선호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발생했다. 앞서 김영두, 하영원(2011)의 연구에서처럼 오혜영(2015)도 금융상품을 구매하거나 처분을 정할 때 조절초점의 수준뿐만 아니라 상품정보를 설명하는 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서 향후에는 개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요소 즉 맥락적 요소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조절초점 성향은 은퇴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현숙, 주소현(2014)의 연구가 뒷받침한다. 이현숙, 주소현(201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방초점 성향보다 촉진 초점 성향의 소비자가 은퇴준비행동을 상대적으로 더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 이유로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찾는 반면 예방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됐다.

<표 1> 조절초점성향별 주요 키워드

촉진초점성향	예방초점성향
성취, 열망, 긍정, 적극적	회피, 안전, 책임, 보호, 소극적
다양한 기회 탐색	현상태유지
최대의 목표 추구	부정적 시각
차선 가능성 고려	신중한 결정

2.1.2 조절초점 측정도구 관련 선행연구

조절초점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되고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Higgins 등(2001)과 Lockwood 등(2002)이 개발한 조절초점척도가 있으며 주로 조작된 시나리오와 합

게 활용되었다. Higgins 등(2001)은 보편적인 동기모델로서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에 치우치는 현상은 결과론적 차이로 이어진다고 예상하며 조절초점 성향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초점 측정 도구(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이하 RFQ)를 구성하였다. RFQ는 Harlow 등(1997)의 연구에서 주된 양육자(예: 부모)와 관련된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으로 구분한 초기 RFQ에서 참조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두 개의 대학교 대학원생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11문항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를 한 후 *과락 오류/관여 오류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Lockwood 등(2002)은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항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고수하는 접근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부정적인 역할모델은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활용하는 회피 전략과 더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역할 모델이 부여하는 동기체계와 그러한 역할모델과 조절초점 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절초점 성향을 분별할 수 있는 검사(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 이하 GRFM)를 했다. 이 후 연구자들은 긍정적 역할 모델과 부정적 역할 모델 각각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보여준 후 더 인상 깊은 내용에 대해 개방형으로 서술하도록 지시했다. 다시 말해 Lockwood 등(2002)의 연구는 Higgins(2001)의 연구과 달리 항상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역할모델에,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역할모델을 더 중시한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긍정적인·부정적인 역할의 존재를 따르는 정도의 차이가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을 결정하는 하위 요인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마케팅학, 심리학, 소비자학, 광고학 등에서 조절초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구된 조절초점 척도를 활용한 것이 일반적이며 각 연구의 주제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메시지 프레이밍, 실험설계, 문장 채우기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조절초점은 내재된 성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황적 점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방향은 성향적인 측면과 상황적 측면으로 구분 가능하며 양쪽을 다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조절초점의 성향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로 이현숙, 주소현(2014)을 언급할 수 있다. 이현숙, 주소현(2014)은 은퇴준비 태도와 행동이 조절초점 성향과 해석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조절초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도구는 Lockwood 등(2002)이 고안한 GRFM이고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예방초점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항상초점, 낮을수록 예방초점 성향에 가깝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조절초점의 상황적 측면에 주목하여 금융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는 김영두, 하영원(2011)과 천성용, 윤효식(2014)이 대표적이다. 김영두, 하영원(2011)은 수도권 및 지방의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 방식을 적용하여 항상초점 대 예방초점으로 구분하여 실험설계를 하였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을 각각 의미하는 시나리오를 1편씩 보여줌으로써 상황적 점화를 하였

* 사람들은 신호탐색(signal detection)을 통해 신호에 따른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한 후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어떤 행동을 시도했을 때 예상한대로 적절한 판단이면 '적중'하였다고 보고 반대로 잘못된 판단이면 관여오류(error of commission)라고 분류하고 있다. 한편 어떤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생각대로 적절한 판단이면 정기각(correct rejection)하였다고 보는 반면 잘못된 판단이면 누락오류(error of omission)라고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취지향형 사람들은 적중과 관여오류를, 안정지향형 사람들은 정기각과 누락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다. 이 후 항상초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과 포부 그리고 이에 대한 과업을 작성하도록 한 반면 예방초점 집단에 포함된 학생들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무감, 책임감, 회피행동을 기재하였다. 해당 기사가 어떠한 조절초점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상황적으로 유도된 조절초점의 유형을 측정한 다음 단계로 금융투자상품 선택 기준으로서 기대수익과 위험에 대한 선택 및 지각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했다.

천성용, 윤효식(2014)은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금과 펀드로 금융상품을 한정하고 실험 설계를 하였다. 항상초점과 예방초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항상초점 집단에게 성취, 이상, 희망 등과 같은 문구를, 예방초점 집단에게 안전, 보호, 회피 등과 같은 문구를 제시하였다. 이 후 과거나 경험했던 일과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에 대해 참가자들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천성용, 윤효식(2014)은 조절초점 성향을 일시적으로 조작한 후 투자 상황을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오혜영(2015)은 성향으로서의 조절초점과 조절초점의 상황적 조건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조절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 등(2001)이 개발한 도구가 활용되어 7점 리커트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항상초점에 대한 평균과 예방초점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중위수 방법을 통해 분류하였다. 이익 및 손실 예상 상황 및 설명 제시 방식을 항상초점과 조절초점으로 각각 조작한 후 주식형 펀드 투자 상품에 대한 시나리오를 4가지로 구성하여 무작위로 한 가지 상품을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종속변수인 금융상품 평가는 제시된 주식형 펀드에 대한 매력도와 호의도, 가입의향과 환매여부 및 시점으로 측정하였다.

2.2 한국 가계의 부채부담 관련 선행 연구

현금흐름의 요소는 소득과 지출이며 소비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차용행동을 하지만 지출보다 소득이 많으면 저축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행동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권장되는 경제활동인 반면 차용행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출은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우연히 발생하거나 개개인이 원하는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차용행동은 불가피하다. 부채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일정한 이자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가계의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켜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를 통한 복지를 구현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부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 파산, 가정의 붕괴, 자살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면서 가계 부채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필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채가계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연구는 부채관리를 하는 전후로 이루어져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이다. 부채의 사용이 필요한 재무목표는 정확한 재무 상태를 기반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축적된 부채를 감액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해당 부채 가계의 재무적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채의 유형과 가계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연구대상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로 이성림, 성영애(2007), 김민정, 조혜진(2013), 성영애(2012), 이희숙, 박민주(2013), 한동익, 최현자(2012) 등이 있다.

이성림, 성영애(2007)는 1년 동안의 가계수지에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면서 주택관련 부채, 월부 및 외상, 일반부채가 유입된 가계로 정의된 적자부채가계를 대상으로 부채를 받

생시키는 지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필수 지출을 주로 하는 생계형, 선택지출비중이 높은 과소비형, 자동차구입으로 인하여 적자부채 가계가 된 자동차구입형, 교육비송금과 대학납입금 등 교육비지출을 주로 하는 교육형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식비, 주거비, 의약품비 등 필수재의 지출이 높은 생계형 가계는 지출보다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부채가 유발되며 일반부채의 상환율이 낮고 월부 및 외상이 빨리 없어지지 않았다. 반면 과소비형 가계는 선택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부 및 외상의 비중이 높지만 당해 상환 비중 또한 높았다. 자동차 구입형 가계는 자동차 구입으로 인하여 일시적 부채 가계가 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고 부채상환비중이 높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형은 교육비목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서 전반적으로 가계지출규모가 큰데 이는 일반부채로 충당하는 걸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일반부채의 상환률은 낮은 편으로 일반부채가 산재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생활주기에 의하면 부채의 흐름은 전 생애에 걸쳐 고정되기보다 특정 단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단계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를 분석한 김민정, 이희숙(2010)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족생활주기 단계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자녀 교육기와 자녀 독립기에 형성된 부채가 많았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일정한 양의 부채는 허용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소득의 대부분이 단절되는 은퇴기까지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 노후자금을 확보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가 은퇴자 가계의 적정 소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관건일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정, 조혜진(2013)은 은퇴자가계를 부채보유가계와 부채미보유가계로 분류한 후 은퇴자가계의 노후생활자금을 제외한 자산을 부채상환가능자산으로 보고 이를 이용하면 남은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보유가계와 부채미보유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차이는 부동산 자산에서 기인하였으며 부채보유가계가 상대적으로 큰 비소비지출을 보이는 이유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결과로 예상하였다. 또한 노후생활자금을 감안하여 부채상환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금융자산과 거주주택의 자산의 합에 거주주택자산을 포함하였을 경우 비로소 부채의 완전 상환이 가능했다.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58.9%로 나타났는데 노후생활자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앞서 언급한 가계의 비중인 78.7%와 비교하면 감소를 했다는 점에서 노후생활자금을 고려하면 부채 상환가능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고 지출을 줄이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의 형태인 제 3의 부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부채의 활용은 가계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해가 되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특성을 연구한 성영애(201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은 56.4%로 나타났다.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중은 3.1%로 총 53만 8천 가계(전체 1,750만 가계)로 집계되었다. 부채취약가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 값을 DSR은 40% 이상, DTA1은 70% 이상, DTA2는 5배 이상으로 정의한 후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에서 부채취약가구의 비중을 비교하였다. 부채취약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가계의 비중이 DSR 기준 27.7%, DTA1 기준 22.1%, DTA2 기준 35.4%로 나타나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

유한 가계가 미보유가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생계부담이 크거나 매우 크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중이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80.4%, 매우 부담스럽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중은 53.3%로 드러났으며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또 다른 부채를 양산됨으로써 결국 소득의 일부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순자산은 감소하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의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채증가가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이희숙, 광민주(2013)는 부채감소가계와의 비교를 통해 부채증가가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채감소가계에 비하여 부채증가가계는 이자가 높은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효대출금리가 높은 만기일시상환방법을 선택하는 등 부채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희숙, 광민주(2013)의 연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부채감소가계와 부채증가가계 간 경상소득의 차이인데 부채증가가계보다 부채감소가계가 더 높은 경상소득 수준을 보였다.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도 언급된 경상소득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감소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역으로 생각하면 부채증가가계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데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정적인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중된 부채로 인하여 그들은 파산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 붕괴는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 파악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금융소외가계로 명명한 후 이들의 부채이용 특성 및 부채부담과 부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금융소외가계의 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 한동익, 최현자(2012)의 연구는 의미하는 바가 많다. 금융소외가계의 87.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미상환액 순으로 부채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대출기관은 비은행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보험회사 순으로 나타났고 대출목적은 생활비 마련, 주거 목적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년 전과 대비하여 부채규모의 변화는 증가한 걸로 인식하였다. 다만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은 단기, 중기, 장기부채부담의 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표 기준의 설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단순히 금융소외가계의 부채 상환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채 부담의 지표 기준에 대한 타당성(김민정, 최현자, 2007)과 새롭게 설정된 재무비율 기준(양세정, 정지영, 2010, 양세정, 주소현, 차경옥, 김민정, 2013)을 참조하여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2.3 가계의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채유무와 규모와 상환능력을 통틀어 포함하는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한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부채부담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관련연구로는 성영애(2010), 광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 정운영, 정세은(2013)이 있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부채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영애(2010)는 부채의 유형을 주택마련, 자동차 구입 등 자산관련 부채와 생활비 마련, 의료비 마련 등 소비성 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가계를 대상으로 유형별 부채 보유율과 보유규모의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주택 마련을 하는데 더 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가계에서 요구하는 부채는 용도별로 평균 2개로 확인되었으며, 사회 인구학적 요소,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영향은 자산증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채와 단순 소비성 부채 및 기타 부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성영애(2010)의 연구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채의 유형이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실물자산의 보유 여부는 자가 구입,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의 마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을 파악할 때 거주 주택 및 거주 주택 이외 주택과 관련된 요소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운영, 정세은(2013)의 연구에서도 이를 지지할만한 결과가 나왔는데 부동산 요인이 소득계층별 부채 보유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소유 주택이 없을수록 거주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부채 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구입보다는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 고소득층은 자가를 가지고 있고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과 달리 부동산을 적극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채 가계에 속하였다고 판단된다.

부채는 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절대액과 재무비율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러한 단계가 선행된 후 가계의 안정감과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부담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부채를 부담하는 수준이 똑같은 가계일지라도 가계별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채부담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부채부담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곽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이 수행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곽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의 연구는 1년 간 부채가 증가한 가계를 대상으로 부담수준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부담 없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관적 부채 부담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객관적 부채부담이 높을수록, 부채상환의 연장이 불가능하고 1년 후 부채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수록 크게 나타났다.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부담 없음’에 각각 해당하는 3집단으로 분류하여 객관적 부채 부담 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부채 부담과 주관적 부채부담이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이 결과는 가계의 부채부담을 논할 때 객관적 부채 부담뿐만 아니라 주관적 부채 부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의 부채부담행동이 조절초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목

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조사대상자들은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2]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부채 관련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서베이 전문업체(마이크로밀 엠브레인)를 통하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13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탐색적 연구의 데이터로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조절초점 측정문항과 부채 관련 문항, 사회 인구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1 성향적 조절초점

조절초점은 성향적 조절초점과 일시적 조절초점 중 개인의 성향으로 적용하기 위해 성향적 조절초점을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GRFM(General Regulatory Focus Measure ; Lockwood, Jordan, & Kunda, 2002)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GRFM는 촉진초점 9개 문항과 예방초점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현숙, 주소현(2014)의 연구에서 변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GRFM 측정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성향적 조절초점 측정 척도(GRFM 척도)

GRFM 측정문항
1. 일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3. 나는 나의 희망과 포부를 달성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4. 나는 미래에 내가 되기 싫어하는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5. 나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6. 나는 미래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7. 나는 나의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자주 걱정한다.*
8. 나는 나의 인생목표 달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9. 나는 내가 모르는 두렵고 나쁜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10. 나는 나의 인생에서 실패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11. 나는 나의 이익달성보다는 손실방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2.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13.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 나의 주요목표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14. 나는 내 자신의 목표와 희망과 열정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5. 나는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7. 나는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18. 나는 일반적으로 손실방지 보다는 이익달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 촉진초점문항 : 3,5,6,8,12,14,16,17,1

예방초점문항 : 1,2,4,7,9,10,11,13,15 - (R)이 표시된 문항

18개의 성향적 조절초점 측정 문항의 경우 기존연구에서는 예방초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코딩한 후 18개 문항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예방초점 집단과 조절초점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8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조절초점성향이 단순히 2개 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즉, 18개의 GRFM 문항은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전반적으로 1요인과 2요인은 촉진초점에 해당하는 요인이었고 3요인과 4요인은 예방초점에 해당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15번 문항(나는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경우 원래 예방촉진 문항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촉진초점 2요인과 함께 분류되어 선행연구에서와 다르게 나타났다. 1요인은 촉진초점의 특성 중에서도 성취와 성과 등을 더 중요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성취성과중심 촉진초점요인”으로 명명하였고, 2요인은 긍정적이며 노력하는 점이 강조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긍정노력 촉진초점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예방초점요인에 해당하는 3요인과 4요인의 경우, 3요인은 주로 회피와 걱정 등을 포함한 문항으로 “회피걱정중심 예방초점요인”으로 명명하고, 4요인은 실패와 예방으로 표현된 문항으로 “실패예방중심 예방초점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조절초점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촉진초점 (성취성과 중심)	[요인2] 촉진초점2 (긍정노력 중심)	[요인3] 예방초점1 (회피걱정 중심)	[요인4] 예방초점2 (실패예방 중심)	Cronbach's Alpha
6. 나는 미래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846				0.860
8. 나는 나의 인생목표 달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748				
3. 나는 나의 희망과 포부를 달성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727				
5. 나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651				
18. 나는 일반적으로 손실방지 보다는 이익달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631				
12.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488				0.817
16.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92			
15. 나는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02			
14. 나는 내 자신의 목표와 희망과 열정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75			
17. 나는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671			0.758
9. 나는 내가 모르는 두렵고 나쁜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803		
7. 나는 나의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자주 걱정한다.*			.760		
13.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 나의 주요목표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651		
2.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611		
4. 나는 미래에 내가 되기 싫어하는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554		

생각한다.*					
11. 나는 나의 이익달성보다는 손실방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821	0.68
1. 일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676	
10. 나는 나의 인생에서 실패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541	
Total	3.657	2.926	2.706	1.783	
% of Variance	20.318	16.258	15.033	9.904	
Cumulative %	20.318	36.576	51.610	61.513	

3.3.2 부채 관련 변수

부채 관련 문항은 보유부채의 유형, 부채이용목적, 부채잔액, 부채상환액, 대출설정기간, 연체경험, 조기상환계획, 부채상환으로 인한 생계비에 대한 부담,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통제 행동, 신용사용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표 4).

<표 4> 부채 관련 변수

문항	측정방법
보유부채 유형 : 주택담보대출/일반신용대출/보험계약대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카드로	중복응답 (1=보유 / 0=미보유)
부채 이용 목적 : 거주주택구입/거주이외주택구입/임차보증금/사업자금/생활비/기타	중복응답 (1=해당 / 0=미해당)
부채잔액, 부채상환액	금액(만원)
부채상환액의 구성에 대한 인지 : 원리금/이자만/모름	
조기상환계획, 연체경험	있다/없다
대출시기, 설정기간	년(개월)
대출이자율에 대한 인지	안다/모른다
부채상환으로 인한 생계비에 대한 부담정보	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5 매우 부담된다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통제 행동	0(그러한 경향이 낮음)~100점(그러한 경향이 높음)
부채사용에 대한 의논 주체	가족/혼자/타인(가족이외)
대출상품 비교여부	했다/안했다
부채이용 시 고려사항 :대출이자율/대출가능금액/대출을 통한 만족감/지출감소에 부담감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5 매우 중요하다
신용사용에 대한 인식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3.3.3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분류를 위해 성별, 학력, 혼인상태, 학력, 직업, 거주지역 등을 포함하였고 재무적 특성으로 총소득, 총지출,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등을 포함하였다.*

3.4 분석방법

모든 분석은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초통계 등 기초분석을 수행하였

*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을 설문지에 포함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수집 과정에서 수치상의 오류(단위 오류)가 확인되어 본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유형화한 집단별로 부채 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을 하였다.

3.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n	%	특성		n	%
성별	남	90	65.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	15.3
	여	47	34.3		대학교 재학, 졸업	103	75.2
연령	20대	18	13.1		대학원 재학, 졸업	13	9.5
	30대	24	17.5	직업유형	봉급생활자	86	62.8
	40대	27	19.7		자영업자	30	21.9
	50대	35	25.5		기타	21	15.3
	60대	33	24.1	직업	미혼	24	17.5
거주지역	서울	48	35.0		기혼	105	76.6
	광역시	33	24.1		기타	8	5.8
	기타시도	56	40.9	가구원수(명)		3.36명	

V. 연구결과

4.1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화

조절초점성향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4개 집단으로 군집을 찾고 각 군집의 조절초점성향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위쪽 8개 문항(1,2,4,7,9,10,11,13)은 예방초점 성향에 해당하는 문항이며 아래 10개 문항(3,5,6,8,12,14,15,16,17,18)은 촉진초점 성향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군집1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방초점 성향을 나타내는 8개 문항은 강하게 나타난 반면 나머지 촉진초점 성향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은 낮게 나타나 예방초점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군집4의 경우는 군집1과는 정 반대의 성향으로 예방초점 성향 문항은 가장 낮게, 촉진초점 성향 문항은 가장 높게 나타나 촉진초점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2는 일부 예방초점과 일부 촉진초점 성향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나 두 가지 성향이 강하게 혼재되어 있는 집단이었고, 군집3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 문항이 없이 중간 또는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예방초점과 촉진초점 성향이 모두 약한 집단이었

* 15번 문항의 경우 선행연구 및 기존 척도에서는 예방초점 문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촉진초점성향 요인으로 분류되어 촉진초점 성향에 포함하여 사용함.

다. 이러한 집단 구분은 인간의 성향이 정확하게 양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4개 집단을 기본으로 다양한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2가지 성향으로만 분석되었던 조절초점 관련 연구와 본 연구는 차별화된다.

<표 6>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소비자유형화(평균 : 성향적 조절초점 평균)

값: 평균(s.d.)

	[군집1] 예방초점 강성향	[군집2] 혼합 강성향	[군집3] 혼합 약성향	[군집4] 촉진초점 강성향	F
n(%)	30(21.9)	37(27.0)	38(27.7)	32(23.4)	
1. 일반적으로 나는 인생에서 부정적인 사건의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3.87 ^a	3.41 ^{ab}	3.00 ^{bc}	2.78 ^d	13.393 ***
2.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3.70 ^a	3.70 ^a	2.87 ^b	2.97 ^b	11.111 ***
4. 나는 미래에 내가 되기 싫어하는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4.00 ^a	3.46 ^a	3.11 ^b	2.78 ^c	16.179 ***
7. 나는 나의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자주 걱정한다.*	3.97 ^a	3.32 ^b	2.87 ^{bc}	2.66 ^c	19.960 ***
9. 나는 내가 모르는 두렵고 나쁜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3.80 ^a	3.41 ^a	2.16 ^b	2.72 ^c	33.129 ***
10. 나는 나의 인생에서 실패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3.90 ^a	3.22 ^b	3.21 ^b	2.50 ^c	20.639 ***
11. 나는 나의 이익달성보다는 손실방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3.83 ^a	3.59 ^a	2.84 ^b	2.81 ^b	15.984 ***
13.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 나의 주요 목표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3.70 ^a	3.57 ^a	2.68 ^b	2.69 ^b	22.446 ***
3. 나는 나의 희망과 포부를 달성하는 방법을 자주 생각한다.	1.83 ^c	2.62 ^b	1.97 ^c	3.00 ^a	32.971 ***
5. 나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1.87 ^c	2.49 ^b	1.87 ^c	3.09 ^a	30.373 ***
6. 나는 미래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3 ^b	2.78 ^a	1.89 ^b	3.13 ^a	42.375 ***
8. 나는 나의 인생목표 달성에 대하여 자주 생각한다.	1.73 ^c	2.54 ^b	2.03 ^c	3.22 ^a	43.549 ***
12. 지금 현재 하는 일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1.90 ^b	2.84 ^a	2.18 ^b	3.16 ^a	25.891 ***
14. 나는 내 자신의 목표와 희망과 열정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7 ^b	2.81 ^a	2.00 ^b	3.03 ^a	30.851 ***
15. 나는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0 ^b	2.68 ^a	2.00 ^b	2.91 ^a	25.650 ***
16. 일반적으로 나는 나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3 ^c	2.35 ^b	2.03 ^{bc}	2.81 ^a	18.393 ***
17. 나는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	1.97 ^c	2.38 ^b	2.29 ^{bc}	2.97 ^a	15.714 ***
18. 나는 일반적으로 손실방지 보다는 이익달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2.07 ^b	3.05 ^a	2.39 ^b	3.09 ^a	19.255 ***

*** p<0.001

4.1.1 집단유형별 조절초점요인 차이

4개 유형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요인분석에 의해 나누어진 4개 조절초점성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취성과중심 촉진초점요인과 긍정노력 촉진초점요인은 촉진강성향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예방강성향 집단과 혼합약성향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반대로 회피걱정중심 예방초점요인과 실패예방중심 예방초점요인은 예방강성향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촉진강성향집단과 혼합약성향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된 집단의 특성이 분명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집단유형별 조절초점성향 특성

값: 평균(s.d.)

	전체	예방초점 강성향	혼합 강성향	혼합 약성향	촉진초점 강성향	F
성취성과중심 촉진초점요인	2.40	1.83 ^c	2.65 ^b	1.99 ^c	3.12 ^a	85.891 ***
긍정노력 촉진초점요인	2.36	1.87 ^c	2.55 ^b	2.08 ^c	2.93 ^a	42.515 ***
회피걱정중심 예방초점요인	3.19	3.83 ^a	3.49 ^b	2.74 ^c	2.76 ^c	54.888 ***
실패예방중심 예방초점요인	3.23	3.87 ^a	3.41 ^b	3.02 ^c	2.70 ^c	30.386 ***

*** p<0.001

4.1.2 집단유형별 일반적 특성 차이

4개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역, 결혼상태, 직업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조절초점성향이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절초점성향을 2개 집단*으로 구분한 이현숙, 주소현(2014)의 연구에서도 배경변수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현숙(2014)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변수로서 소득이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진초점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본 탐색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될 향후 연구에 확인할 예정이다.

<표 8>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집단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값: n(%)

		예방초점 강성향	혼합 강성향	혼합 약성향	촉진초점 강성향	X ²
성별	남	22(73.3)	24(64.9)	25(65.8)	19(59.4)	.716
	녀	8(26.7)	13(35.1)	13(34.2)	13(40.6)	
연령	2030대	8(26.7)	11(29.7)	12(31.6)	11(34.4)	.924
	4050대	16(53.3)	18(48.6)	16(42.1)	12(37.5)	
	60대	6(20.0)	8(21.6)	10(26.3)	9(28.1)	
거주지역	서울	7(23.3)	15(40.5)	12(31.6)	14(43.8)	.374
	광역시	10(33.3)	6(16.2)	8(21.1)	9(28.1)	
	기타시도	13(43.3)	16(43.2)	18(47.4)	9(28.1)	
결혼상태	기혼	23(76.7)	29(78.4)	30(78.9)	23(71.9)	.901

* 중위수 기준 2집단

	미혼/이혼/사별	7(23.3)	8(21.6)	8(21.1)	9(28.1)	
직업유형	봉급생활자	21(70.0)	24(64.9)	20(52.6)	21(65.6)	.535
	자영업자	5(16.7)	10(27.0)	10(26.3)	5(15.6)	
	기타	4(13.3)	3(8.1)	8(21.1)	6(18.8)	

4.2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부채 관련 특성

4.2.1 보유 부채 유형 및 이용목적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유형에 대해 중복 응답하도록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55.5%, 일반신용대출 이용자는 43.1%였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1.9%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 17.5%보다 많았고 신용카드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2.4%로 비교적 적었다. 부채이용목적의 경우 역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거주목적의 주택구입을 위한 부채가 46.0%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를 위해 부채를 이용한 경우가 35.0%, 사업자금을 위해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가 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과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6.8%와 9.5%였다. 보유하고 있는 부채유형별, 그리고 부채이용목적별로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험계약대출의 보유집단과 보유하지 않은 집단, 생활비를 위해 부채를 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수준 10%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5%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보유부채 특성

값: n(%)

		전체	예방초점 강성향	혼합 강성향	혼합 약성향	촉진초점 강성향	X ²
보유 부채 유형	주택담보대출(n=76)	76 (55.5)	13 (43.3)	22 (59.5)	25 (65.8)	16 (50.0)	4.053
	일반신용대출(n=59)	59 (43.1)	13 (43.3)	16 (43.2)	16 (42.1)	14 (43.8)	0.022
	보험계약대출(n=24)	24 (17.5)	3 (10.0)	4 (10.8)	12 (31.6)	5 (15.6)	7.604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n=30)	30 (21.9)	8 (26.7)	9 (24.3)	8 (21.1)	5 (15.6)	1.278
	신용카드 카드론(n=17)	17 (12.4)	4 (13.3)	5 (13.5)	7 (18.4)	1 (3.1)	3.866
부채 이용 목적	주택구입(거주)(n=63)	63 (46.0)	11 (36.7)	15 (40.5)	20 (52.6)	17 (53.1)	2.823
	주택구입(거주이외)(n=13)	13 (9.5)	1 (3.3)	3 (8.1)	7 (18.4)	2 (6.3)	5.327
	임차보증금(n=23)	23 (16.8)	7 (23.3)	5 (13.5)	6 (15.8)	5 (15.6)	1.262
	사업/투자자금(n=36)	36 (26.3)	11 (36.7)	6 (16.2)	13 (34.2)	6 (18.8)	5.775
	생활비(n=48)	48 (35.0)	13 (43.3)	15 (40.5)	15 (39.5)	5 (15.6)	7.026 ⁺

+ p<0.1

4.2.2 대출선택에 있어서 비교여부

현재 지니고 있는 부채에 대해 처음 대출을 선택 시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하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예방초점성향이 강한 경우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신중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대출상품을 비교하였는지, 또는 2개 이상을 비교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절초점성향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유하고 있는 부채유형(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비조사의 사례수가 적어 향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표 10> 대출상품 비교여부

값: n(%)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X ²
2개 이상 비교	67(48.9)	16(53.3)	14(37.8)	23(60.5)	14(43.8)	4.443
비교하지 않음	70(51.1)	14(46.7)	23(62.2)	15(39.5)	18(56.3)	

4.2.3 부채사용에 대한 상의주체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을 당시 누구와 상의하였는지를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한 결과 가족과 상의한 경우, 혼자 결정한 경우에서 그 분포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촉진강성향 집단의 경우 가족과 상의한 경우가 상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하게 비중이 높았고, 이에 비해 예방강성향 집단과 혼합약성향 집단에서는 가족과 상의한 경우가 가족과 상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비중이었으나 촉진강성향보다는 낮은 비중이었다. 혼자 결정한 경우 절반 이상이 기혼자였는데(n=25, 23.8%)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혼자 결정하였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이 경우 유의수준 10% 범위 내에서는 조절초점성향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5% 범위 내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상대적으로 촉진강성향 집단이 혼자 결정한 비중이 더 낮았다. 일반적인 예방초점과 촉진초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한 방향과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촉진초점 성향이 강한 경우 오히려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누군가와 상의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부채사용에 대한 상의(중복응답)

값: n(%)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X ²
가족	98(71.5)	21(70.0)	22(59.5)	26(68.4)	29(90.6)	8.592*
혼자	42(30.7)	10(33.3)	16(43.2)	11(28.9)	5(15.6)	6.312*
가족 이외 타인	14(10.2)	3(10.0)	4(10.8)	5(13.2)	2(6.3)	0.923

+ p<0.1 * p<0.05

4.2.4 대출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대출을 선택할 때 대출이자율이나 대출가능금액, 대출을 통한 만족감, 부채가 생긴다는 부담감, 상환으로 인한 다른 소비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 집단별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대출이자율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있어서 집단별로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10% 범위 내에서 유의하였다. 대출이자율의 경우 혼합약성향을 보인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하였고 촉진강성향 집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면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해 촉진강성향집단이 예방강성향 집단과 혼합약성향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촉진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목표성취 등에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자율을 적게 고려하며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과 부채가 있다는 부담감의 경우 혼합약성향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출을 통한 만족감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유의하였지만 사후검증 테스트에서는 집단이 분류되지 않아 평균값으로 추측한다면 예방강성향 집단과 혼합약성향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대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대출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값: 평균(s.d.)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F
대출이자율	4.55 (0.62)	4.63 ^{ab} (0.49)	4.43 ^{ab} (0.60)	4.74 ^a (0.50)	4.38 ^b (0.79)	2.742 *
대출가능금액	4.27 (0.75)	4.40 ^{ab} (0.62)	4.05 ^b (0.85)	4.45 ^a (0.69)	4.19 ^{ab} (0.78)	2.203 +
대출을 통한 만족감	3.45 (0.93)	3.67 (0.88)	3.27 (1.04)	3.66 (0.91)	3.22 (0.79)	2.358 +
부채가 있다는 부담감	4.09 (0.71)	4.10 ^{ab} (0.66)	4.14 ^{ab} (0.48)	4.26 ^a (0.72)	3.81 ^b (0.90)	2.500 +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감	3.99 (0.76)	4.17 ^a (0.70)	3.92 ^{ab} (0.64)	4.16 ^a (0.82)	3.69 ^b (0.78)	3.116 *

+ p<0.1 * p<0.05

4.2.5 조기상환계획

집단별로 약정된 기간보다 더 일찍 대출액을 상환할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촉진초점 성향보다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부채의 보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의 손실과 위험에 민감하여 미리 부채를 부담하려는 의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분석결과 예상했던 바와 달리 조절초점 성향별 집단에 따라 조기상환계획에 대한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조기상환계획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기상환계획의 여부뿐만 아니라 상환액의 범위, 납부 주기, 조기상환계획에 대한 주관적 이유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3> 조기상환계획

값: n(%)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X ²
예	111(81.0)	27(90.0)	29(78.4)	31(81.6)	24(75.0)	2.503
아니오	26(19.0)	3(10.0)	8(21.6)	7(18.4)	8(25.0)	

4.2.6 연체경험

조절초점성향을 기준으로 구분된 4집단에 따라 부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연체를 한 적이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체는 이자율을 가중시키고 매 달 납부해야하는 부담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과 손실로 분류될 수 있어 촉진초점성향보다 예방초점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연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별로 연체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예상했던 바와 달랐는데, 이는 연체경험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추가적인 요인이 있거나 소액의 연체를 하기 힘든 납부 구조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므로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만한 사항이다.

<표 14> 연체경험

값: n(%)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X ²
예	26(19.0)	7(23.3)	8(21.6)	5(13.2)	6(18.8)	1.376
아니오	111(81.0)	23(76.7)	29(78.4)	33(86.8)	26(81.3)	

4.2.7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행동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나눈 집단별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부채 때문에 현재 지출을 줄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관리 행동을 고려한 이유는 촉진초점보다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집단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몰두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 당장의 지출을 절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별로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찾기 위해 향후 분석에서는 예방초점 성향이 높았을 때 소비지출 관리행동을 한다는 틀을 지우고 다양한 각도에서 소비지출 관리행동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문항의 표현력 및 어조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예방초점보다 촉진초점에 가까운데 단순히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예방초점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 행동에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조절초점성향보다는 또 다른 결정요인이 있을 가능성

을 점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문항이 예상하게 하는 상황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너무 극단적인 느낌을 주는지 여부도 생각해볼만하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표 15>에서 제시된 문항이 불러오는 상황만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5>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 행동

값: 평균(s.d.)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F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 다.	61.09 (23.47)	60.67 (30.16)	61.89 (20.80)	62.37 (24.43)	59.06 (18.55)	.216
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즐겁지만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참고 지낸다.	61.61 (24.11)	64.00 (28.96)	61.35 (22.87)	61.32 (25.38)	60.00 (19.51)	.132
나는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 므로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한다.	56.35 (24.22)	57.00 (31.20)	59.73 (19.79)	51.58 (25.31)	57.50 (20.00)	.146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서 스트레 스를 받고 있지만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55.84 (25.11)	60.00 (31.29)	58.38 (22.30)	51.58 (25.42)	54.06 (21.23)	.759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을 하면 내 생활이 더 편해지겠지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58.18 (24.05)	59.67 (30.90)	59.19 (21.00)	56.84 (24.84)	57.19 (19.71)	.816
소비지출 관리 행동	58.61 (22.47)	60.27 (29.32)	60.11 (19.79)	56.74 (22.99)	57.56 (17.76)	.115

<표 16>을 보면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유형화 집단과 중위수 기준 소비지출통제·미통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지출관리행동의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통제에 대한 행동에는 조절초점성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16> 조절초점성향 유형 집단과 소비지출관리행동 유형 집단 분포

값: n(%)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X ²
중위수 미만 집단	68 (49.6)	13 (43.3)	17 (45.9)	20 (52.6)	18 (56.3)	.711
중위수 이상 집단	69 (50.4)	17 (56.7)	20 (54.1)	18 (47.4)	14 (43.8)	

* 소비지출관리행동 집단은 5개의 문항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집단으로 분류한 것임.

4.2.8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

돈을 빌리는 행동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별로 조사한 결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소비지출을 기꺼이 줄일 수 있다’는 집단별로 유의수준 5%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10% 범위 내에서 유의하였다.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초점강성향 집단과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재보다 금리가 높아 질까봐 불안하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소비지출을 기꺼이 줄일 수 있다’,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은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대출 이용자의 손실을 의미하며 부채를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손실과 위협에 민감한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에서 금리 변화에 대한 불안과 소비지출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조절초점성향으로 인한 소비지출 관리행동에서의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는 상반된 결과로 조사대상자가 문항을 다르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채에 민감한 예방초점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편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애초에 촉진초점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예방초점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무목표 달성과 원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로서 두 문항 모두 목표 지향성을 알 수 있는 문항이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빚에 대한 무던함을 표현하여 촉진초점에 가깝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지향성을 반영한 두 문항에서 강조한 재무목표와 원하는 것이 조사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할 것일 수 있다. 흔히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람마다 마음속의 계정항목이 따로 있어 같은 돈이라도 부여하는 의미와 소비 의사결정 과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심적회계 이론에서처럼 똑같은 부채일지라도 이에 대한 생각과 처리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무목표와 원하는 것의 특성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채의 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이 내제되어 있으므로 위협과 손실을 지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이 점이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집단별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달리 나오게 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채를 이용하는 목적과 부채의 유형별로 조절초점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면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빚에 대한 무던함은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에 비해서는 낮지만 사후검증 결과 같은 범위로 묶이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수를 늘린 후 동일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혼합강성향집단과 혼합약성향집단의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두 집단은 각각 성향이 섞여있거나 아예 약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므로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조절초점성향이 아닌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된다. 특히 혼합약성향집단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문항의 경우 기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부채를 부담하는 과정의 특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절초점성향의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타변수와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17>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

값: 평균(s.d.)

	전체 (n=137)	예방초점 강성향 (n=30)	혼합 강성향 (n=37)	혼합 약성향 (n=38)	촉진초점 강성향 (n=32)	F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55 (0.83)	3.93 ^a (0.64)	3.41 ^b (0.83)	3.58 ^{ab} (0.89)	3.31 ^b (0.82)	3.579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4 (0.99)	3.97 ^a (0.81)	3.14 ^b (1.08)	3.58 ^{ab} (0.95)	3.13 ^b (0.87)	5.884 ^{**}
주거안정성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괜찮다.	3.32 (0.98)	3.47 ^{ab} (0.94)	3.08 ^b (1.09)	3.61 ^a (0.95)	3.13 ^{ab} (0.83)	2.551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이 대출을 받는 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55 (0.92)	3.67 ^{ab} (0.92)	3.35 ^b (0.95)	3.84 ^a (0.86)	3.34 ^b (0.90)	2.622 ⁺
현재보다 금리가 높아 질까봐 불안하다.	3.72 (0.98)	4.00 ^a (0.91)	3.76 ^{ab} (1.09)	3.76 ^{ab} (0.91)	3.34 ^b (0.94)	2.485 ⁺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65 (0.85)	3.73 ^a (0.91)	3.68 ^a (0.71)	3.92 ^a (0.85)	3.22 ^b (0.79)	4.511 ^{**}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소비지출을 기꺼이 줄일 수 있다.	3.69 (0.77)	3.97 ^a (0.67)	3.49 ^b (0.77)	4.00 ^a (0.66)	3.28 ^b (0.77)	8.279 ^{***}
빚이 있으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99 (0.83)	4.10 ^{ab} (0.88)	4.00 ^{ab} (0.82)	4.16 ^a (0.72)	3.69 ^b (0.86)	2.183 ⁺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2.07 (1.10)	2.27 ^a (1.23)	2.05 ^{ab} (1.05)	1.68 ^b (0.84)	2.34 ^a (1.21)	2.634 ⁺

+ p<0.1 * p<0.05 ** p<0.01 *** p<0.001

V. 연구요약 및 향후 진행 계획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조절초점성향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세분화한 결과 4집단으로 유형화 되었다. 군집1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예방초점 성향을 나타내는 8개 문항이 강하게 나타났고 촉진초점 성향을 나타내는 10개 문항은 약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방초점강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군집 4는 예방초점 성향 문항은 낮고, 촉진초점 성향 문항을 높게 나타나 촉진초점강성향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예방초점성향과 촉진초점성향의 일부 문항이 강하게 나타나 두 가지 성향이 혼재되어있으므로 혼합강성향으로, 군집3는 두 가지 성향 모두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나있으므로 혼합약성향으로 이름을 붙였다.

둘째, 부채의 특성을 부채 유형 및 이용목적, 대출상품 비교 여부, 부채사용에 대한 상의주체, 대출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조기상환계획, 연체경험, 부채상환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행동,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여 조절초점성향을 토대로 분류된 4집단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대출상품 비교여부, 조기상환계획 여부, 연체경험여부, 부채

상황을 위한 소비지출 관리행동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채 유형 및 이용목적, 부채사용에 대한 상의주체, 대출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분·전체적으로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부채의 유형은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카드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보험계약대출만이 유의수준 10% 내에서 차이를 보이며 혼합약성향이 월등히 높게 보험계약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촉진초점강성향, 혼합강성향, 예방초점강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이용목적은 주택구입(거주/거주 외), 임차보증금, 사업/투자자금, 생활비로 분류하여 확인하였으나 생활비 목적만이 유의수준 10% 내에서 차이를 보이며 혼합강성향과 혼합약성향이 똑같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가졌다.

집단별로 부채사용에 대한 상의주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하여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에서 가족과 상의한 비중이 높았고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에서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에 비해 혼자 결정한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혼자 결정한 경우 절반 이상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그러한데 통상 촉진초점성향이 강한 경우 오히려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예방초점 성향이 강한 경우 실패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포함한 누군가와 상의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출선택 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차이를 규명해보니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이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에 비해 대출이자율과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부채가 있다는 부담감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한다는 부담감도 크게 느낌과 동시에 대출을 통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출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현재보다 금리가 높아 질까봐 불안하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소비지출을 기꺼이 줄일 수 있다’,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은 일반적인 조절초점성향의 결과와 일치했지만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상반된 결과였다. 한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 적 있다’는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이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에 비하여 높아 조절초점성향의 특성과는 맞지만 값의 범위가 일치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함의와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면서 향후 진행해볼 만한 연구의 주제와 영역 그리고 제언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절초점성향을 2가지로 규정한 기존의 연구를 더 발전시킨 결과로 조절초점성향에 수준에 따른 집단의 세분화를 통해 인간의 성향은 단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자료로서 조절초점성향을 고려한 타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도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해당주제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둘째, 집단별로 부채 유형과 부채이용 목적의 차이가 특정 유형과 목적에 한해 존재하였는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부채유형과 부채이용 목적을 구체화하여 각 대출상품과 목적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조절초점성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예방초점강성향 집단이 촉진초점강성향 집단에 비해 대출이자율, 대출가능금액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부채 부담과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크게 느끼고 동시에 대출을 통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일반적인 조절초점성향의 개념과 비슷한 맥락에서 무리 없이 이해가 된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위험

수용성향과 더불어 조절초점성향을 반영한 금융정보제공과정을 확립해야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조절초점성향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거나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은 부채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부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는 조절초점성향 외 기타변수를 추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초점 변수의 설명력에 변화가 있는지, 조절초점 변수를 조절변수로 두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부채잔액, 부채상환액 등 재무적 특성을 설문지에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수치상의 오류(단위 오류)가 확인되어 본 분석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조절초점 성향별로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기존 연구는 조절초점이 상황적으로 일시적 점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향적 조절초점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기법, 실험설계, 문장 채우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적 조절초점을 적용하였다. 특히 조절초점 성향은 맥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적 조절초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앞으로 상황적 조절초점과 부채부담행동 간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본다면 조절초점이론과 부채부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조절초점성향과 부채상태평가지표의 준거기준 및 피트니스 기준(적정/경고/위험)의 관계와 기준의 변화에 따른 성향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인간의 성향이 부채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어 부채부담과 관련된 연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을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규명해봄으로써 향후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절초점성향이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절제 노력여부 및 조기 상환 의지, 부채에 대한 태도 등 행동적 요소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탐색적인 단계로서 살펴봄으로써 연구방법과 연구주제의 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금융소비자의 부채부담행동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가계경제구조를 평가함에 있어 부채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을 고려하는 재무설계서비스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민주, 이희숙, 김민정(2012). 주관적 부채부담에 따른 부채증가 가구의 특성과 영향요인. 소비자문제연구, 43, 157-175.
- 김민정, 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53-69.
- 김민정, 조혜진(2013). 부채보유 은퇴자가계의 재정상태 및 부채상환가능성: 은퇴생활필요자금을 고려한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9(2), 41-62.
-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주영(2014). 가구의 생애주기와 경제적 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연구, 24(4), 225-236.
- 김주영, 장희순(2016).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변화특성 분석-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14(1), 221-230
-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오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3), 29-52.
- 성영애(2012). 부채상환용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특성. 금융소비자연구, 2(2), 25-47.
- 양세정, 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세정, 주소현, 차경옥, 김민정(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오혜영(2015). 조절초점과 손실회피성향에 대한 처리 유창성이 금융상품 가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 141-163.
- 이성림, 성영애(2007).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10), 45-57
- 이현숙, 주소현(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론에 따른 은퇴준비 태도 및 행동. Financial Planning Review, 7(2), 1-32.
- 이희숙, 곽민주(2013). 부채감소가계와 부채증가가계의 특성 비교. Financial Planning Review, 6(2), 63-80.
- 정운영, 정세은(2013). 소득계층별 부채가계의 특성과 결정요인의 비교: 부동산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29(3), 415-439.
- 정은경, 김봄메, 손영우(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09-221.
- 주선희, 구동모, 김재진(2013). 제품 무형성이 소비자의 위험지각 및 위험감소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초점의 조절적 영향. 마케팅논집, 21(3), 27-57.
- 천선용, 윤효식(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 금융상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39(1), 69-81.
- 천선용, 윤효식(2014). 조절초점과 해석수준이 금융상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지, 39(1), 69-81.
- 한동익, 최현자(2012).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73-99.
- 홍준희(2001). 스포츠 상황에서 자기조절 초점과 목표추구 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Higgins, E. Tory(1997), Beyond Self-Regulatory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 Higgins, E. Tory(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ory, S. Ronald Friedman, Robert E., Harlow, Lorraine C. Idson, Ozlem N. Ayduk, and Amy Taylor(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23.
- Idson, L. C., Liberman, N., & Higgins, E. T., (2000). Distinguishing gains from nonlosses and losses from nongains: A regulatory focus perspective on hedonic intens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252-267.
- Lockwood, P., Jordan, Christian H, and Kunda, Ziva(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854-864.